

# 전교생 3% 확진 때도 일괄 원격수업 안 한다

### '15% 격리' 등 지표 맞춰 학교별로 수업 방식 결정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 등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이 정해진다.

지역이나 학교가 통째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학교가 이동형 신속 PCR(유전자증폭)·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 검사와 자체 조사로 방역을 관리한다.

유엔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미크론의 특성과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해 전면 준비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인 밀집도 기준에 따른 일괄적 학사 운영에서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년 등 현장 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 중 2, 3번째 유형은 등교가 가능한 등교-원격 혼합수업을 하고,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도 대체학습·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다. 다만, 이를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교생이 600명인 학교라면, 20여 명의 신규 확진자나 100여 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일부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넘었을 때는 일부 원격수업 전환도 가능하다. 이때도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환할 수도 있고,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일부 학년·학급에

대해서만 수업 방식을 전환할 수도 있다.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전국적인 감염·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하고, 방과

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전파율과 확산 속도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방역도 자율성을 강화한다. 학교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한다. 이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교직원 20%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는 추가로 10%를 확보한다. 현장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를 설치해 진단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교원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학교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초·중등 교과 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 투입,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200명 확보 등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대학 학사운영도 전반적으로 대면수업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해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대학별로 1단계 일부수업, 2단계 모든 수업 비대면 전환 등 비상대응 계획(업무 연속성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새해 첫 병역판정검사 2022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7일 오후,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합참측정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낮 평년 기온 회복 아침 영하권 지속

### 광주·전남 주말 비

이번 주 광주와 전남지역 최고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추위가 주춤할 것을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8일과 9일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2도 가량 높아져 추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다만 아침 기온은 최대 영하 5도 안팎으로 추울 것으로 내다봤다.

8일 일 최저기온은 영하 6-0도, 최고기온은 5-10도가 분포를 보이겠으며 9일에는 낮 기온이 최고 11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는 13일까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온화해지는 가운데 주말인 12일 밤과 13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봤다.

기상청은 "순천과 여수, 광양, 장흥, 보성, 고흥, 구례 등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만큼 주택화재 및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구민 온라인 소통 다변화

### 광주 북구

광주 북구는 구민에게 다양한 구정 소식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임·외출 자제 등으로 위축된 주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북구는 지난해 지역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메신저인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동안 구 누리집과 전화 등으로 문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했다. 기존 북구청 '카카오톡 채널'과 연계해 다양한 구정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가능하다. 민원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북구청 유튜브(Youtube) 채널에는 공무원 '브이로그', 관광 명소·맛집, 주민 행사·자치활동,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재미를 더한 영상을 게시, 다채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 구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함께 SNS 서포터즈를 운영, 연령·계층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박혜자 전 의원, 광주 첫 여성교육감 도전

박혜자 전 국회의원이 광주의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첫 여성 교육감이 되겠다고 출마표를 냈다.

박 전 의원은 7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은 "광주교육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대도시 평균 수준을 밑도는 수능 등급과 상위권 비율, 광주학생의 외부유출 증가 등으로 교육도시 광주의 명성은 옛 말이고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코로나19 속 더 빨리 다가온 미래 사회에 대비, 광주교육은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023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

2028년 미래형 수능 등 교육 변혁의 거센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광주교육은 수명이 다한 과거 교육과는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 광주교육을 제대로 새로고침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혜자 전 의원은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지역균형 인재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직을 수행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서구 '매칭데이' 참여 구직 청년 모집

### 17일 최종 합격자 선발

광주 서구가 오는 17일까지 '디지털 뉴딜'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 사업 일환인 '매칭데이'에 참여할 구직 청년을 모집한다.

'디지털 뉴딜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다.

서구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월 디지털 뉴딜분야 정규직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을 공개 모집해 최종 29개 기업을 선정했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구직 청년을 모집한 후 오는 17일 매칭데이를 열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접수하면 되며, 부득이하게 사전 접수를 못한 경우에는 공개 면접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매칭데이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기업별 매칭시간을 달리해 줌(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된다.

채용된 청년이 2년간 취업을 유지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업유지장려금과 자기계발지원금 지원, 직무교육 등의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열독률 호남 1위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국민은행

**저축,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할인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자**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